



Glossy Abelia

꽃댕강

- ▶ 과명 : 인동과
- ▶ 학명 : *Abelia grandiflora*
- ▶ 영명 : Glossy Abelia
- ▶ 일명 : ハナノツクバネウツギ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1930년경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꽃댕강은 중국산 댕강나무 사이에서 원예종으로 잡종 육성된 종간잡종으로 중부 이남에 식재되어 왔다.

도입 초기에는 내한성이 약하여 중부이북 지역에서는 월동 중 피해를 받아 식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식재되고 있는 주세이다. 새로 나는 가지에 꽃이 피기 때문에 전정의 시기는 11월에서 다음해 3월 이른 봄에 전정하면 그 후에는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1. 생태적 특성

반상록성의 낙엽관목으로 수고 2m 정도 자라고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군생한다. 내한성은 약한 편이며 대기오염이나 해풍에도 강하고 맹아력도 좋은 편이다. 내음성은 약하여 큰나무 아래에서는 잘견디지 못한다.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에 식재하면 초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적으로 피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다른 꽃이 없는 계절에는 가까이 가 볼만하다.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밑에서부터 여러 개의 줄기가 나오며 새로 자란 가지는 선홍색이고 잎은 마주나며 잎자루는 짧고 계란모양이며 가장자리는 결각이 있으며 표면은 광택이 있고 늦겨울까지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 꽃은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여 흰색 또는 분홍색으로 피고 자방하위의 통꽃이 병모양으로 달린다. 열매는 네 개의 날개가 달려 있으며 대부분 성숙치 않는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잎이 반상록으로 봄부터 초겨울까지 녹색을 유지하고 꽃도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피므로 은은한 향기와 아름다운 꽃의 색감에서 친근감을 느낀다. 특히나 대기오염에 강하고 특히나 맹아력이 강하여 도로변의 생울타리와 학교나 공공건물의 진입로 유도식재로 좋은 소재이다. 특별히 전정은 할 필요가 없으나 맹아지만 절단하고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은 11월에서 다음해 이른 3월에 해야만 새 가지에서 나오는 꽃을 무궁무진하게 볼 수 있다.

4. 번식법

꽃댕강은 종자결실이 잘 않되기 때문에 번식은 포기나누기나 삽목(挿木)으로 번식한다. 포기나누기는 이른 봄 전체를 굴취 하던지 아니면 포기 주변을 파서 뿌리를 달리게 줄기를 잘라내면 된다. 삽목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가능하다.

5. 그 밖의 용도

개화기간이 길기 때문에 꽃꽂이 소재로 이용 할 수 있다.

